

2009 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표어

시대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도,
곧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승천하신 주님이시자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행사하는 기도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이 그분께 연결되어 그분과 하나 됨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위해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표현하고 그분께 다시 반향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이름 안에서 구하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여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중보 기도의 사역을 위해 그리스도와 동역하여,
우리의 중보 기도 안에서 그분의 중보 기도를 수행한다

**2009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시대의 기도

메시지 1

기도의 중심 목표와 시대의 기도

성경: 행 2:36, 엡 1:19-23, 3:19하-21, 4:22-24, 5:27, 마 16:18-19

I. 기도의 중심 목표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다. 이 기도는 시대의 사역과 시대의 이상에 따른 것이다.

- A.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서 하시는 특별한 회복과 일이 그 시대의 사역, 곧 그 시대의 이상을 공급하는 사역이다—잠 29:18상.
- B. 오늘날 우리가 한마음 한뜻 안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이상, 모든 것을 이어 받은 최신의 이상,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행 26:19, 엡 1:17, 3:9.
- C. 기도의 중심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 곧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만족을 위한 배필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는 것이다—엡 5:27, 요 17:23, 엡 1:23, 3:19하-21.
- D.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권익과 하나님의 목표에 따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 1.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집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왕상 8:48, 단 6:10.
 - 2.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의 권익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엡 5:32, 6:17-18.
 - 3.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는 기도와 생활을 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삼상 4:3.

II.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시대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승천 안에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 A.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죄들이 용서받고 죽음에서 살아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인 하늘들의 영역에 앉혀진 사람이므로, 승천의 사람이이다—엡 2:5-6.
- B. 우리가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생명은 승천하여 하늘에 속하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일단 이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하늘과 교통하고 하늘에 연결된다—골 3:1-4, 요 1:51, 비교 3:13.
- C.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앉혀진 위치로, 곧 하나님의 모든 대적 위에 있는 위치로 구원하셨다. 여기 그리스도의 하늘의 임재라는 하늘의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본성과 특징을 지닌 하늘의 백성이다.
- D. 오늘날 우리는 성취된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서 이 실재를 실재화하고 체험한다—고후 4:13, 비교 히 4:2.
- E.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승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하늘의 생명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늘을 접촉하면서, 주님의 임재라는 하늘의 상태와 상황과 분위

기 안에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만질 때, 그들은 하늘에 속한 공급을 얻게 될 것이다—엡 4:8, 계 1:20.

- F. 우리는 승천 안에 삶으로써 변화되어 주님의 신부 군대, 곧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기치(旗幟)를 벌인 군대 같이 엄위한” 여인이 될 것이다—아 6:10, 비교 창 1:16-18.
- G. 우리는 반드시 승천의 위치에 있는 승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전쟁의 기도와 시대의 기도, 곧 승천의 기도를 할 수 있다—엡 2:6, 6:12, 아 4:6-9, 비교 창 3:14, 고전 15:47-48.
- H.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 서 있다면, 직접 환경에 명령하고, 어려움들을 꾸짖으며, 대적의 모든 일을 멸할 수 있다.
- I.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회의 모든 기도에는 권위를 가진 명령이 너무 적다. 그러므로 이 기도들이 대적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실지 상태가 여전히 땅에 속하고, 승천의 실재가 있는 승천의 위치에 있는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III. 시대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도, 곧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승천하신 주님이 시자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행사하는 기도이다. 이러한 기도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관념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보여 주는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엡 1:17.

- A.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를 보아야 한다.
 - 1. 그리스도의 승천은 구속의 일 전체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히 1:3, 10:12.
 - 2.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권위가 세워졌다는 것을 가리킨다—행 2:36.
 - a. 주님께서 얻으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이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다—엡 1:19-23, 3:20.
 - b.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셨고 우주의 주님으로 세워지셨으며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시어 교회에게 주어지셨다는 하늘에 속한 사실을 보아야 한다. 만물은 그분의 발 아래 있고, 그분께서 얻으시고 도달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다—엡 1:22-23.
- B.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위치를 보아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위치는 그리스도의 위치와 정확히 똑같다. 몸은 머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의 위치는 머리의 위치와 정확히 똑같은 것이다—고전 12:12, 27, 엡 5:30.
- C.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권위를 보아야 한다.
 - 1. 몸의 권위는 몸에 의해 행사되는 머리의 권위이다. 따라서 몸의 권위는 머리의 권위이다.
 - 2.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취해야 한다—마 28:18하-19상, 눅 10:19.
- D.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도를 보아야 한다.
 - 1. 이러한 기도는 개인적인 믿는 이들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기도이다. 우리는 육신으로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몸과 하나이다.
 - 2. 이러한 기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 달라고 애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께서 얻으시고 도달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 a. 그리스도는 주님의 권위와 머리의 권위를 얻으셨다. 그분은 모든 것 위의 주님과 머리로서 교회에게 주어지셨다.
 - b. 그리스도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셨다.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우주 안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 권위를 초월하셨다—엡 1:20-21.
 - 3.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 안에서 얻으신 것에 따라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현 상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승천의 위치를 취하고, 현 상황을 지배하시는 주님의 권위를 우리의 것으로 요구합니다.” 라고 기도할 것이다.
 - 4.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 안에서 도달하신 것에 따라 기도할 때 다만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를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몸 안에 있고, 몸은 머리 안에 있으며, 머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 우리가 머리의 몸이고 지금 머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도달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요구하기 위하여 그 위치를 취할 것이며, 부정적인 모든 것들에게 “나를 괴롭히지 마라. 불 못으로 가라!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해 있다.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 너는 나의 발아래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5. 몸은 하늘들에 계신 머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하늘들에서 이미 묶인 것이나 풀린 것을 묶고 푸는 권위가 있다—마 16:19, 18:18.
 6. 교회는 반석 위에 건축되고, 이 반석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이다. 결과적으로 음부의 문들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마 16:18.
- E. 이러한 종류의 기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머리가 몸에게 주신 권위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
1.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몸의 지체들이고 몸 안에서 살고 행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사람은 머리와 함께 몸으로, 곧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로 구성된다—엡 4:22-24, 2:15-16.
- F.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고 권위의 기도를 하기를 배워야 한다. 지난 이천 년 동안 이 문제들은 소홀히 여겨져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것들을 회복하시리라고 믿는다. 너무도 자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의 기반을 취하지 않고 그분께서 얻으시고 도달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잃어버린 이 기반을 주님께서 회복하시리라 믿는다. 이것은 좋은 땅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가장 높은 산이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가장 높은 이 봉우리, 가장 높은 이 산을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사실들을 깨닫고, 그 기반을 취하고, 머리가 얻으시고 도달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이기는 기도이다. 이것이 시대의 기도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3년, 제1권 236쪽.*